

경영대학, 전국 경영대 평가 “10위” 등극

2020 환경비즈니스 전국 경영대 평가 결과 전년대비 4단계 순위 상승

2020 전국 경영대 평가 종합 순위

종합 순위	대학	2019 순위	변동	종합 순위	대학	2019 순위	변동	종합 순위	대학	2019 순위	변동
1	고려대	1	-	10	동국대	15	▲4	21	송실대	21	-
2	서울대	3	▲1	12	서울시립대	12	▲1	22	단국대	20	▲2
3	연세대	2	▲1	13	건국대	13	-	23	영남대	24	▲1
4	성균관대	4	-	14	홍익대	15	▲1	24	아주대	22	▲2
5	한양대	5	-	15	부산대	15	-	25	경기대	26	▲1
6	서강대	5	▲1	16	국민대	12	▲4	26	동아대	33	▲7
7	경희대	7	-	17	경북대	23	▲6	27	전남대	47	▲20
8	중앙대	8	-	18	인하대	19	▲1	28	인천대	29	▲1
9	한국외국어대	10	▲1	19	세종대	17	▲2	29	광운대	32	▲3
10	이화여대	9	▲1	20	숙명여대	18	▲2	30	충남대	27	▲3

2020 화제의 경영대

대학	2019년	2020년	순위 변동
동국대	14위	10위	▲4
경북대	23위	17위	▲6
전남대	47위	27위	▲20

출처=환경비즈니스

경영대학은 환경비즈니스에서 실시하는 ‘2020년 전국 경영대 평가’에서 10위를 차지하였다. 매년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도 2019년 14위에서 10위로 4계단 뛰어오르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였고 2020년 화제의 경영대로 선정되어 향후 10위권 내 경영대학들을 긴장시킬 경쟁자로 떠올랐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환경비즈니스 전국 경영대 평가는 국내 3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이뤄졌다. 교육부 공시 입학 정원이 100명 이상인 총 50개 대학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전공 및 교양 교육의 업무 적합성, 업무 적응력, 조직 융화력, 발전 가능성, 창의적 업무 해결, 국제화 시스템, 성실성과 책임감, 신입 사원 채용 선호도 그리고 진학 추천 등 총 9개의 설문 항목을 분석 후 각 부문 순위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산출하였다.

경영대학은 전체 항목 중 업무 적응력 및 실무 능력, 조직 융화력, 향후 발전 가능성, 신입 사원 채용 의향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아시아의 선도적인 경영대학’이라는 비전하에 국제화, 교육 혁신, 경영 윤리, 전문화를 핵심 가치로 설정한 경영대학은 해외 유명 대학들과 교환 학생 프로그램, 복수 학위제도 운영은 물론 해외 인턴십과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경영대학의 교육 방침은 크게 4가지다. 첫째는 ‘윤리적 사고 형성’이다. 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학생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명사를 초청해 윤리 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둘째는 ‘국제적 시각과 진취적 도전의식 함양’이다. 다양한 전공 강좌 영어 수업 진행, 해외 대학과 복수 학위 및 공동 학위제를 운영한다. 셋째는 고객 만족 지향 교육 서비스 제공이다. 철저한 학사 관리와 함께 국내외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 학기당 2회의 강의 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는 학생 중심 교육을 이루는 핵심이다. 넷째는 전문적 기업 경영 지식으로 경영 분야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 인턴십을 활용한 실무 경영 교육, 기업 최고경영자(CEO) 멘토링 제도, 네트워크 구축 등이 교육 방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영대학은 2012년 세계 최고의 경영교육단체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에서 경영 교육 인증을 획득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김대룡 전 경영대학장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 명문 경영대학으로 부상하기 위해 교육 혁신과 국제화를 끊임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혁신과 국제화를 통해 세계의 명문 경영대학으로”

현장서 인정받는 실무 중심 교육 ... 4차산업 이끌 비즈니스 리더 양성

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글로벌 MBA

약학 MBA

의료기기혁신경영 MBA

분야별 특화된 커리큘럼

주중-주말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은 1973년 개설된 경영대학원의 전통을 이어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경영대 중 5%에 해당되는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인증 및 재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해외 유수의 명문 대학들과 복수 학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데이터애널리틱스 MBA, 글로벌 MBA, 약학 MBA, 의료기기혁신경영 MBA 등 현장에서 인정받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과정은 주중 온라인 수업, 주말 오프라인 수업, 실습으로 이뤄지며 계절학기를 이용해 3학기 만에 졸업이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 또한 넓혔다. 무엇보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남산을 품은 환경 또한 동국대 MBA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데이터 애널리스트×경영 전문가를 키우는 Business Data Analytics MBA

비즈니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MBA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능력과 데이터 기반의 경영의 사결정 역량을 갖춘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애널리틱스 기초와 마케팅, 인적자원 관리, 운영관리, 재무관리, 회계 등 경영분야 필수 교육을 운

영한다. 동시에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과 응용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모든 강의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의 이론과 실무에 특화된 교수진이 담당하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주중에는 온라인 야간 수업, 주말에는 대면 수업 형태로 진행한다.

글로벌 인재양성 전문프로그램 Global MBA 글로벌 MBA는 100% 영어 강의로 진행된다. 해외 각국의 우수 대학들과 다양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MBA 교육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또 최신의 경영이론과 실무지식을 제공해 급변하는 환경을 리드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양성한다. MBA에 기본이 되는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인사조직·전략, 마케팅, 재무, 회계, MIS, 운영관리를 기본 트랙으로 구성해 비전공자 및 기업체 근무자들에게 경영학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약학-경영학 융합한 국내 최초 약학 MBA 약학 MBA는 국내 최초로 제약바이오산업과 의약산업 분야에 특화된 MBA 교육을 제공한다. 전문경영인에게 필요한 기본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산업과 의약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지식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건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장, 기술, 정책환경 변화를 이해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한다. 특히 경영학 지식, 글로벌 성장전략, 혁신기획, 글로벌조달전략, 사업성평가, 라이선싱론 등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내 벤처 설립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과정이다.

산업체(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임직원, 주요 보건의료기관의 대표자와 부서장,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

건복지부 관리직 등에게 요구되는 이론과 실무 교육이 제공된다.

국내 유일 의료기기혁신경영 MBA

의료기기혁신경영 MBA는 기존 보건 분야 MBA와 달리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의료기기 산업 특화 MBA 과정이다. 기업 경영 분야 필수 교육과정과 함께 혁신 의료기기 창업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아우르는 사업화 분야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특화 교과목으로 혁신 의료기기 개발의 전주기 프로세스를 다루는 바이오디자인(스탠퍼드대 의료기기 개발 프로그램) △기업 내 문제 해결을 진행하는 액션러닝 △국내외 의료기기 지원사업 활용 전략 등이 있다. 산·학·연·병 인프라를 적극 연계해 교내·외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해 실무에 직접 활용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스타트업, 의료기기 산업체 임직원, 주요 의료기기 유관기관의 관리직 등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배양하고 실무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모든 강의는 주중 야간(온라인)과 주말(오프라인)에 개설되며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계절학기 운영 등을 통해 3학기 안에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국대 MBA는 신입생장학, 성적우수 장학, 산학협력장학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미국 텍사스대와 협정을 맺고 두 학교의 학위를 함께 취득할 수 있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학년도 9월에 시작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MBA, 글로벌 MBA, 약학 MBA, 의료기기혁신경영 MBA 과정의 신입생 모집은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mba.dongguk.ed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면에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경영대학이 차별화되는 것은 ‘액티브 러닝’이라는 혁신 교수법을 도입한 점이다. 액티브 러닝은 학생들이 팀을 이뤄 능동적으로 과제 또는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교수 학습 방법을 포괄한 것이다. 첫째는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둘째는 팀을 통한 협력적 학습, 셋째는 실제 과제와 문제 해결, 넷

째는 전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습득이다. 경영대학은 이러한 혁신 교수법을 도입한 15개 강좌를 2020년 2학기에 개설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재원, 박선진 기자

심현식 동문, 공인회계사 후배 양성 위해 ‘1억원’ 기부



작년 10월 14일, 심현식 동문(상학 59)이 총장실을 찾아 공인회계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심현식 동문의 뜻에 따라 ‘현인공인회계사육성기금’으로 명명되어,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들을 지원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심현식 동문은 상학과 1회 졸업생으로 현재 예원회계법인 이사로서 재직 중이다. 올해 팔순임에도 여전히 현업에서 활동 중인 심현식 동문에게 모교는 남다른

의미다. 심 동문은 본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대학 시절 은사의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대학 졸업 뒤 ROTC 1기로 군복무를 마친 후 농협 등 여러 회사를 거치며 미래를 고민하던 심 동문은, 학창 시절 은사 이용택 교수가 꾸준히 회계사를 권유했던 것이 떠올라 시험에 응시했다고 한다. 이후 28세에 시험에 합격하여 오늘날까지 회계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래 전부터 사회 공헌의 뜻을 품어왔던 심현식 동문은 ‘모교의 우수한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기부를 결심했다. 심 동문은 “공인회계사에 뜻이 있으나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 이러한 후배들에게 기부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윤성이 총장은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심현식 동문님 같은 선배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동문님의 뜻을 받들어 우수한 인재를 더욱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공인회계사반은 심현식 동문 기부금으로 “현인 공인회계사육성 장학금”을 조성하여, 매학기 공인회계사 1차 및 2차 준비학생 2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학과 동문회장 안영찬(경영 85) 인터뷰

“동문회는 졸업생과 재학생 네트워크의 중심”

1. 회장님 소개와 동문회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85학번이며,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까지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교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동문 중에 저는 특이하게 4학년 2학기 재학 중 학교에서 강의실 L301에서 결혼까지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동문회는 1회 졸업생이신 이창규 회장님과 조희영 교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학교와 경영학과 발전을 위한 가장 많은 기여와 봉사를 해왔습니다만 공식 조직으로 구체성을 담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2. 경영학과 동문 회장님을 언제부터 맡으셨는지, 어떻게 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 학번과 나이에서 경영학과 동창회를 맡는 것은 시기상 이른 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영학과 동창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는 덕망과 존경을 고루 갖추신 70대 학번 선배님 중에 하셔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 제가 대신 조직구성과 관련된 일을 Re-Build Up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런 자세에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동국대 경영학과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왔나요?

우리 경영학과는 1959년 설립, 1964년 대학원 석사과정과 경영학 박사과정이 개설된 이후 5,000여 명의 학부 졸업생, 250여 명의 석사와 100여 명의 경영학 박사 그리고 1,000여 명의 재학생들이 함께 발전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0주년 행사만 하고 책자 발간을 하지 않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4. 동문회는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나요?

경영학과 동문회는 우선 경영학과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동문 선배 간의 친목 도모와 강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문회가 되고자 하며 아울러 재학생 후배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한 경영학과 동문회의 역할 수행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동국대 경영학과 주요 동문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경영학과 동문회는 이창규 회장님 조희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1기 졸업 선배님부터 30회 졸업생(85학번)까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연회와, 보다 젊은 후배들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동연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산업과 경제계 요직에 두루 선배님들이 포진해 있으



며 후배들은 그 대를 이어가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동문회의 향후 운영계획이 따로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조직의 구체와 운영의 가시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우선 집중해서 홈페이지 작업과 SNS 멤버 확충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 경영학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

자기가 원하는 삶의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걸어가는 동안 항상 순탄치 않을 것이며 그때 느끼는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는 과정의 본인 모습도 사랑하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외국어와 데이터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후배가 실패했던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권규희, 이슬기 기자



제일기획 이흥섭 (회계 80) 감사님 인터뷰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성, 그리고 몰입”

학생들이 내가 실제로 이해해서 아는 것과 암기를 한 것을 헛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분명 공부한 문제인데도 계속해서 틀리게 됩니다. 그건 회계처리 방식을 외운 것이지 이해를 한 게 아닙니다. 회계원리의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계속 반복해서 틀렸던 문제의 회계논리가 이해되면 공부가 즐거워지고 또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인데, 주관식의 경우 정확하게 출제된 사람의 답을 안써도 논리적으로만 풀어나가면 상당히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제자는 기본적으로 답안지를 보면 학생이 어디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보입니다. 따라서 답안의 흐름을 보다 보면 분명 이 친구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다 파악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을 답안에 그려내는게 중요합니다.

안보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그런 저의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떤 게 돈이 되는지를 빨리 찾는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지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매니저가 됐는데, 주변에 동국대 선배가 없으니까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내가 책임자가 돼서 스태프들에게 일을 나눠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업무를 나눠주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일을 개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계획서를 써주는 일이 유행이었는데, 사업계획서를 쓰는 건 일반인이 하기 조금 어려워서 주로 회계사들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무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일거리를 개발하려고 비서실들의 팩스번호를 알아내서 거의 제안서만 100군데 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안전회계법인 감사본부 부대표, 현재 (주)제일기획 상근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국대 회계학과 이흥섭이라고 합니다.

Q. 회계 감사를 하는 법인에도 계셨고, 현재는 제일기획 감사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현재 맡고 계신 직책의 일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법인에 있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법상의 감사로서, 이사들이 운영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축내는게 없는지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 없는지 감시 감독해서 주주들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있었을 때와 유사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Q. 회계법인에 계실 때 계속 승진을 해 오셨는데, 직급별로 요구되는 어떤 역량이 있나요?

회계사 스태프로 일할 때는 100% 일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순전히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로 승진하게 되면 업무 능력 70%, 일거리를 개발할 능력 30%가 중요하고, 상무로 진급하게 되면 5:5의 비율이 됩니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업무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회사에 많은 일거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스스로 개발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Q. 회계사님께서 회계사 합격 당시는 정말 50명 내외로 회계사를 선발하던 시절인데, 공부의 비결 같은 게 있나요?

Q.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제 주변 제 나이대 사람 중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은퇴 상태입니다. 공인회계사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가 있으면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공부할 걸...”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여성분들은 결혼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 재택을 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직업과 다르게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이 많을 땐 되게 많기 때문에 밤샘을 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주52시간제를 때문에 일이 없으면 휴가를 쓰라고 회사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기에다 관촬은 직업 같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든 시험이란 게 마약과 같아서 한번 뛰어들면 미련이 남아서 손을 놓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빠른 기간 안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Q. 법인의 부대표까지 맡으실 정도면 업무나 업무 외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 같은데 그 비결이 있나요?

저는 관계를 빨리 구축하는 스타일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관계가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고, 다시는

Q. 앞으로의 계획은?

나를 필요로 하는 데에서 75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걸을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Q. 지금의 20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창시절에 무엇을 이루어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뤘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인간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8-90세까지 살기 때문에 처음에 잡았던 삶의 방향이 살아가면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그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민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 내가 잡은 방향을 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 속에서 우리는 몰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짧고 길 수도 있는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몰입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정채원, 박선진 기자

University of Alabama 재무 박사과정 전태인(경영 12) 인터뷰 “유학은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Q. 먼저 선배님이 유학 가기 전 동국대 재학하셨을 때 학과 생활이나 동아리 활동, 영어 실력이나 학점 등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저는 삼수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동기들보다 늦다는 생각에 학기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점관리는 열심히 했었고,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진로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영어를 꽤 잘했고, 전공 선택과목을 듣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무 과목들을 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Q.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유학을 결심하게 된 건 3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을 떠올려 보았고, 제가 잘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 정도 길이 좁혀지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히게 된 건 윤선중 교수님 조교를 하면서였습니다. 학부 조교로 교수님 강의의 보충수업을 맡게 되었고, 매주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다 보니 가르치는 것에 흥미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 자연스럽게 교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하루를 보내시는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얻는지 판단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제 성향과 교수님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서 나도 이런 길을 가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진로를 정하게 됐습니다.

Q. 유학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유학을 준비하려면 영어시험도 쳐야 하고, 교수님들에게 추천서도 받아야 하고, 진학하려는 분야의 선수과목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재무 쪽으로 지원하려고 재무 과목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재무는 기본만 알면 되고 대부분 수학이나 통계 쪽 과목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는 경영대 수업은 거의 안 듣고 미적분 같은 수학과 전공과목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힘들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영어시험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원에 가려면 GRE라는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토플이 영어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시험이 있더라고요. 자기소개서도 영어로 써야 해서 조금 힘들었는데 교수님들이 많이 봐주셨습니다. 주변에 유학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서 혼자 새 길을 가야 했는데,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Q. 현재 유학 생활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석사과정때는 코로나가 없었고, 박사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상황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캠퍼스가 중심이 돼서 지역 상권이 돌아가는 캠퍼스 타운이라 주변 상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사수업은 출석 자율권을 주어 현재는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미국 남부에 있는 시골 도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조금 어려웠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프로그램에 있는 친구들과 서로의 강점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인 친구들에게 놓



쳤던 수업내용에 관해 물어보고, 저는 그 친구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면서 서로 도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Q. 유학을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정형화된 시스템 안에서만 교육을 받다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이 섞인 환경을 경험했던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같은 미국인이라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유학 생활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에서 여러 장학 혜택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공부할 수도 있으니 단지 비싼 유학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유학을 선택하기 전 교환학생 시스템을 통해 유학 생활을 간접적으로 먼저 겪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규희, 이슬기 기자



양동훈 교수,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봉사부문 선정

경영대학 회계학과 양동훈 교수는 올해 4월 12일 삼일회계법인의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이하 삼일저명교수) 봉사부문에 선정되었다.

삼일저명교수는 삼일회계법인이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선정한다. 봉사 부문은 회계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온 현직 교수들, 저술 부문은 회계학 관련 저술 업

적이 탁월하며 우수한 학술 활동을 펼쳐 온 현직 교수들 가운데 회계 산업 및 학회의 발전에 리더십을 발휘한 현직 교수를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양동훈 교수의 임기는 이달부터 오는 2022년 3월까지이며, 한국회계학회는 삼일회계법인의 후원 하에 임기 동안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제55회 공인회계사 합격생 안수범, 조운석 (회계 11) 인터뷰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업 관련된 영역에서 광범위한 활약을 하는 전문직이다. 최근, 공인회계사 시험 지원자가 급증하며 많은 학생이 ‘회계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다.

Q. 회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희가 학교에 진학하였을 때는 경영학부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회계 원리 수업을 듣다 보니 회계에 흥미가 생겼었습니다. 또 학교 수업으로 회계사 1차 과목 관련한 수업을 듣다 보니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시험공부를 시작하였을 때 공부 자체가 이질감이 들지 않고 재미있다는 생각에 회계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Q. 나만의 공부 방법 및 꿀팁은 무엇이었나요?

당일에 배운 내용은 바로바로 복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회계사 시험의 경우 많은 양을 공부해야 하기에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제가 택한 방법은 “단권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정하고 저는 그 책 위에 지식을 쌓는다고 생각으로 책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시험 전날에 하루만에 훑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짧

은 수험기간이 요구되는 시험은 아니기에 어떤 날은 공부가 잘된다고 새벽까지 하고 어떤 날은 공부가 되지 않아 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슬럼프가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였고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점 이수 또는 토익 같은 시험 요건 관련된 것을 빨리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요건을 미리 충족시켜놔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또 수험기간에 애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ㅎㅎ). 아무래도 수험에만 몰두하기 위해 다른 주변 요소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수험생활 중 생긴 습관이 있으셨나요?

첫 번째로는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작게는 하루하루에서 한 주 정도 계획을 세웠고 크게 크게는 한 달 단위로 과목을 나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할 때 공부 시간의 목표치를 세워놓고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습관화하여 공부하였습니다.

Q. 취직 전 상상하셨던 업무와 현재 진행하고 계신 업무와 차이점이 있나요?

사회생활을 처음 해보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제가 담

당하는 업무는 전화나 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팀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직급이 최소 대리, 과장인데 저희보다 연배가 꽤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희보다 어르신인데 뭔가를 요구하고 가져와 달라고 하는 게 좀 어렵고 조금 무례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말을 강하게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물론 제가 회계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맞지만 그분들도 그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해온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고치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생겨서 약간 괴리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Q. 회계사 시험 합격 후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추천하는 공부가 있나요?

NCS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기준서와 회계 기준서를 많이 찾아보는 것이 1년 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위한 공부와 실무와는 괴리가 있으므로, 기준서의 사례와 질의응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업무수행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기회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보통 6년 차 이상부터 해외파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판, 영어 능력 등을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놓으면 좋습니다. 또, 법인이 한국 회사만 맡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에서 영어를 볼 일이 많고, 또 회계 필드에서 쓰는 용어 자체도 영어가 많으므로 영어를 잘 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Q. 마지막으로 회계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더 이상 회계사라는 직업에 전공은 중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회계사라는 라이선스의 취득이 끝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 라이선스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시대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꾸준히 공부해야 하고요. 그래도 라이선스를 가지게 됨으로써 선택의 폭은 확실히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직이나 직업을 선택하면서 나를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험생활은 힘들겠지만, 후배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신다면 후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채원, 민수연 기자

“다양한 분야로 시야를 넓혀 새로운 기회를 잡아라”

에이스토리 전략기획실장

김용수(경영 07) 인터뷰

요즘 ‘킹덤’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에이스토리’를 아시나요? 콘텐츠의 발굴과 제작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회사의 가치를 주식시장에 알리기 위한 IR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현재 전략기획실에서 IR 및 공시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수 선배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07학번 김용수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MBA에 진학했습니다. 그 후, 핀테크 업계에서 근무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현재는 ‘에이스토리’라는 회사에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2. ‘에이스토리’에서 주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제가 주로 맡은 활동은 IR 활동 및 회사 전략을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회사들의 경우 작년 10월까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 회사가 제일 먼저 주가가 폭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IR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IR이란, 투자자와 소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저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활동입니다. 이때 저희가 내세운 컨셉은 시장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IR 활동 이후 그때부터 폭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업무로는, 공시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컨트롤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3. 회사 내 부서별 역할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크게 제작 1본부, 제작 2본부, 경영지원 및 경영전략본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작 1본부의 경우는 주로 드라마를, 제작 2본부의 경우는 예능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Q4. ‘에이스토리’ 근무자들의 전공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작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의 경우 문예창작학과, 신문방송학과, 영상학

과의 전공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경영 전략 부서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경영학과, 경제학과 혹은 언어학과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비율 자체가 제작 쪽이 많다 보니, 주로 근무자들의 전공은 문예창작과, 신문방송학과 등이 많은 편입니다.

Q5. ‘에이스토리’의 IP담당 쪽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하신 것 혹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회계 쪽 베이스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까진 아니지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장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에 왜 이런 계정과목으로 처리되었는지 등 회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Q6. 제작할 시나리오를 고를 때 특별히 보는 기준이나 조건이 있나요?

시나리오를 고르는 기준이 주관적으로 재미있다 없다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이게 상품으로써 팔릴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즉, 철저한 시장논리에 의해 OTT들이 원하는 콘텐츠에 맞춰 제작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자극적인 소재, 디즈니는 가족적이고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소재, 카카오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소재 등 모두 원하는 게 다릅니다.

Q7. 아무래도 에이스토리 콘텐츠의 화제작인 ‘킹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킹덤’은 어떻게 제작된 것이고, 또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흥행하게 될 줄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킹덤’은 ‘시그널’에 이어서 초기단계부터 제작에 참여한 작품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지식 재산권’입니다. 이걸 보유해야만 소위 말하는 힘이 있는데, ‘킹덤’을 제작할 당시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처음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런 외주제작을 맡겼고, 나중에 콘텐츠에 대한 관권은 넷플릭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처음에 킹덤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제작하면 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정도였는데, 회사 사람들이 미래 OTT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 콘텐츠 시청자도 많아졌고 한한령이 풀리면서 수혜를 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Q8.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할당시에는 IR쪽으로 가겠다 하는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은행, 증권사 이쪽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지만, 상장하기 전의 회사에 가서 상장을 시켰을 때, 일반인들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의 스톡 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분명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정성만 쫓다 보면 그런 기회를 놓쳐 후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서 성장하는 산업군에 편승해서 가는 것도 취업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채원, 민수연 기자



한국벤처투자 전경준 (경영 13) 인터뷰

“망설이기보다는 부딪혀 보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인생에서 제일 빛나는 시기인 20대 초반. 가능성과 기회가 넘치는 대학생이지만, 그만큼 고민과 걱정도 많다. 때때로 그러한 순간엔, 친구들과 하는 백 마디 고민상담보다, 선배님들이 주시는 한 마디의 조언이 더 큰 힘이 되기도 한다. 학부시절 우리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현재 사회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계시는 경영대학 전경준 선배님을 만나보았다.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학부시절 학교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는 한국벤처 투자 경영기획본부에서 재무회계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전경준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복수전공은 따로 하지 않고 다른 대학의 수업을 들어보려고 법학, 통계 수업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1학년 때는 취업이 어렵다 해서 학점과 대외활동 스펙에 대한 압박이 심해서 학점 따기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대외활동은 연합학술동아리 kcc에 들어가 6개의 대학이 모여 심포지엄을 열어 발표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하는 등 학술적인 공부를 심도 있게 하였습니다. 저는 되도록 학교활동을 많이 참여하려 노력했어요. 군대를 다녀와 16년도에 복학한 뒤에는, 해외경험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국 해외 학술탐방을 참여하여 여름방학에 미국에 다녀왔고, 벤처기업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로 선택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Q2. 학부시절, 이것만은 꼭 해라!

첫 번째로, 연합학술동아리 같이 타 학교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

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공부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해외학술탐방이나 교환활동과 같은 해외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취업을 한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해외경험을 하기 힘들어해요. 해외경험이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회사 취업 이후에도 글로벌 부서 지원 등과 같은 기회가 많아집니다. 실례로 제 회사의 글로벌 본부 부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해외경험이 있으세요. 해외경험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차라리 다녀와서 후회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Q3. 학부시절, 이것만은 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학부시절 저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많이 망설이곤 했어요. 해외인턴, 교환학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년 동안 다녀와 봤자 얼마나 어학이 늘까?’, ‘돈만 들고 시간 낭비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렇게 망설여서 놓쳐버린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할까 말까”에 대한 망설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은 짧게 하고, 바로 도전해보기를 바랍니다. 고민하는 것은 해보고 싶기에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후회없이, 무엇이든지 다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Q4. 학교에서 학부생들에게 제공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이 있나요?

교수님과 의 간담회가 꾸준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교수님과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간담회를 하면 교수님과 이야기도 많이 나눠 볼 수 있고 다른 기회들이 많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대기준으로 타 대학에 비해 인턴십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들 위주로 자연스럽게 학교랑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어요. 학교와 연계해서 인턴십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인턴십에 쉽게 도전해볼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커리어 개발도 할 수 있게 되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5. 현재 진로고민과 취업준비로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진로고민 부분)

“자신감을 가져라!”

혼자서 고민하고 끄끄 앓기보다는, 일단 부딪혀보며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정말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제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아 교사를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보다 학생들을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어요.

인턴생활을 통해서는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이 나에게 더 잘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경쟁보다는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하는 역할들이 나에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인턴십 하기 전에는 고민만 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던 날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 해보고 부딪혀보니까 가지치기가 되면서 방향성이 잡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짧게 하고 바로 부딪혀보면,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게 분명해져서 몰입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취업고민 부분)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져라!”

자기만의 무기 가지기, 필살기!

취준기간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힘 빠지고 늘어지게 될 수 있어요. 이때, 자신이 믿을 구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힘들 때 버틸 힘이 생깁니다. 저도 충분한 인턴십 경험이 제 필살기라고 생각했기에 서류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필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생길 수 있었죠. 잘 될거라는 믿음도 항상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1년도 채 안돼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취업기간이 길어져도, 자신과 자신에 대한 실력적 믿음이 있던 친구들은 결국에는 잘 되더라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 계속해서 막연해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자신만의 무기, 필살기를 갈고 닦아 두고, 잘 될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민재, 박소민 기자

경영대의 희망찬 첫걸음!

경영대학 신입생 나민석(경영 21), 유다현(경영정보 21) 인터뷰

가장 아름다운 나이, 20살. 불같은 입시를 끝내고 낯선 세계에 발을 딛은 새내기들.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그들은 아직 모르는 것도, 어려운 것들도 많은 나이지만 또 그렇기에 용감하고,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기도 하다. 씩씩하고 발랄한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1. 아기코끼리가 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나민석 고등학교의 체계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고싶은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 설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업적인 부분 이외에도 동아리활동이나 학과생활을 통한 동기들과 선배들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유다현 역사가 깊은 동국대학교에 와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저희를 '아기코끼리'라 칭해서 부끄러웠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마다 "정말 내가 대학생이 되었구나" 실감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만남, 모든 것이 새롭기에 기대가 됩니다.

Q2. 동국대학교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민석 학식이 정말 맛있습니니다! 총무로 주변에는 물가가 비싸서 밥을 매일 사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기숙사에 함께 사는 친구가 학식을 먹자해서 아무런 기대 없이 먹었는데 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렴한데 양도 많아서 요즘 매일 학식을 먹는 것 같아요! 밥이 부족할 때 밥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시기도 합니다. 인심도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무슨 메뉴를 먹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다현 학교에서 남산이 바로 보여요! 남산과 가장 가깝고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30분 이내면 대부분 다 갈 수 있더라고요. 교통이 굉장히 편해요. 입학 선물로 받은 굿즈도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고, 굿즈들을 많이 보내 주셔서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Q3. 비대면 강의의 어려운 점은?

나민석 웹엑스 프로그램에서 가끔씩 채팅 오류가 나는 것이 가장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점수가 들어가는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채팅으로 치고 싶은데 채팅을 치지 못하니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유다현 집중을 잘 못하겠어요. 노트북 화면으로 공부를 하는거랑 직접 대면수업을 참여하는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한이 없다면 밥을 먹으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침대에 눕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보니 진도를 놓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적은 게 아쉬워요. 새내기들은 모르는 것도 많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선배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에브리타임에 질문을 남기는 것이 전부예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게 조금 힘듭니다.

Q4. 지금 수강중인 수업중 가장 마음에 드는 수업은 무엇인가요?

나민석 '작곡실습'을 너무 만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작곡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작곡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초등학교 수준부터 천천히 알려주시더라고요. 모두가 이해할 때 까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해서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또 수업을 시작하고 20분정도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를 듣기도 해요. 마치 라디오처럼. 다음 수업이 또 기대가 되네요!

유다현 저는 자아와명상 수업이 가장 좋아요. 처음에는 스님이 가르쳐주신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명상을 하면서 저에 대해 많이 되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눈만 감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자아와명상은 학업에 지친 저를 위로해주는 수업 같아요. 힐링의 시간이죠!

Q5. 비대면 수업 시대, 나만의 즐기는 방법은?

나민석 코로나 때문에 요즘 친구들끼리 만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친구들을 못 본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니까 친구들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웹엑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술자리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온라인 모임은 그것대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기분이 들어요.

유다현 취미생활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싶더라고요. 친구들을 따라 PC방을 가서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 또 밤에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지금은 필라테스에 관심이 생겨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진행했으면 온전히 제게 투자하는 시간들이 적었을 것 같은데 비대면이다보니 제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Q6. 동국대학교 경영대에 바라는 점.

나민석 저는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이라 해도 금융, 마케팅, 인사 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장소나 행사등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학금 지급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있어요. 소득분위를 고려하여 성적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성적장학금만큼은 소득분위 산정을 하지 않고 성적으로만 산정한다면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더 불태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다현 수강신청할 때 전공 티오가 매우 부족해요. 수강신청을 하다보니 '내 전공인데 내가 내 전공을 못 듣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듣고싶은 수업들도 많고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들도 많은데 티오가 부족하다보니 원하는, 또 필수적인 수업을 못듣는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송민재, 박소민 기자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3대 경영대 학생회 '동경'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3대 경영대 학생회 '동경'입니다. 계속되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저희는 3가지의 기조를 가지고 경영대 학우 여러분의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할 수 있는 경영대 학생회

2020년 그리고 2021년,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으로 인해 저희 학생회는 경영대 학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사업들을 포기해야했습니다. 이제는 길어지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학생회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학생회가 되고자 비대면 물품대여사업, E-스포츠 대회, 경영대 온라인 문화제 등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경영대

경영대는 타 단과대에 비하여 모든 학우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많은 경영대 학우 여러분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아쉬

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쉴 곳 없는 공강 시간,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대형 행사, 소통창구의 부재 등 학우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실시간 소통창구 개설, 강의별 오픈채팅방 개설, 선후배 연결 플랫폼 기획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누구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경영대

20,21학번 학우분들은 제대로 된 캠퍼스 생활을 즐겨보지 못한 채 신입생 시절을 보내왔고, 보내고 있습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 동기 MT, 축제 등 신입생이라면 당연히 경험해야 할 것들을 놓쳤습니다. 저희는 직접 마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께 추억을 만들어드리고자 신입생을 위한 경영대 생활백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동경네컷'과 같은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취업과 직결된 3, 4학년 경영대 학우 여러분을 위하여 취업센터·경영대 학사운영실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2학기에는 비대면 취업설명회를 준비하여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선배님들과 연결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할 예정이니, 2021년의 동경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로 인한 현 상황이 안정되어 캠퍼스에서 학우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영대 학생회장 김성래
부학생회장 최운서

DK메디칼시스템 이창규 회장 산업훈장·'혁신경영대상' 수상



DK메디칼시스템 이창규 회장(경영 61)이 작년 11월 20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두베홀에서 열린 "제13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 50여 년간 의료기기 산업에 종사하면서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이뤄왔고, 영상진단 의료장비인 디지털 X-ray 국산화와 기술 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및 수출을 확대해 우수 의료기기를 보급하고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창규 회장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 높은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여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창규 회장은 또한 작년 8월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2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경영학자가 선정한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이회장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엑스레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여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영학과 장학금(DBA Scholarship) 56명에게 전달

경영대학 경영학과(학과장 정욱)는 작년 11월 2020학년도 2학기 경영학과 장학금(DBA Scholarship)을 전달했다.

DBA Scholarship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56명의 학생(1학기 26명, 2학기 30명)에게 총 5,6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경영학과 동문회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영학과 장학제도는 DBA Scholarship 이외에도 해외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해외 탐방을 지원하는 'DBA Explorer 장학금', 해외 유학지원금 및 본교 대학원 진학지원금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올해 장학금 수여식은 열리지 못하였지만, 경영학과 장학기금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면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영학과 동문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의미있는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재학생들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경영학과 동문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영찬 경영학과 동문회장(경영 85)은 "장학금 지급을 위한 면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사연에 경영학과 선배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전해질 수 있어 무엇보다 가슴벅찬 경험이었다. 장학금지급이 실천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신 경영학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뜻과 더불어 경영학과 동문회는 향후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이끌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Business Data Analytics MBA

2021 후기 입학설명회

일 시 : 5월 27일(목) 오후12시 ~

오프라인 참여 : MBA 202호 강의실

온라인 참여 : 170 657 9250 (Webex 미팅번호)

본교 졸업생 특전



입학금 전액 면제!



본교 졸업생 2개학기 등록금 50% + 특별장학금 지급



조교장학생 우선선발 기회제공!



3학기 만에 MBA석사학위 취득!

AI × 데이터 × 경영 = 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MBA

- 1.5년 과정(3학기 + 계절학기)으로 논문없이 MBA 석사학위 취득!
- On-Off line Blended Learning!
-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이론과 실무에 특화된 교수진 협동강의!
- 파이썬 & R프로그래밍 MASTER!
- 산학협력장학, 성적우수장학 등 폭넓은 장학혜택!
- 서울의 중심 남산을 품은 편리한 접근성!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2021 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2021년 4월 26일 (월) ~
입학문의 : 02-2260-8882, 8885

<http://mba.dongguk.edu/>

학위로만 끝나는
MBA는 가라!

현장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특화프로그램
DONGGUK MBA

데이터애널리스트 x 경영전문가
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MBA

글로벌인재양성 전문 프로그램
Dongguk Global MBA

글로벌의료기기산업의 리더
의료기기혁신경영 MBA

약학과 경영학을 융합한 국내 최초
약학 MBA



2021 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2021년 4월 26일(월) ~
문의 : 02)2260-8882, 8885
홈페이지 : mba.dongguk.edu